

똥, 고름 그리고 영혼: 환대 (불)가능한 인지증 돌봄에서 영혼과 정동적 관계 맺기*

정 종 민**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정동적 달라붙음으로서 영혼과 관계 맺기
-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 IV. 오염물질과 모욕 그리고 출몰하는 영혼들
- V. 증여와 주체 담론을 횡단하는 공-산
- VI. 나가며

국문초록 | 팬데믹 동안에도 지속된 인지증(치매) 돌봄의 추동력과 견인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 너머 존재인 영혼에서 온 것이라면 그 이유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나는 돌봄대화를 중심으로 똥·오줌·고름과 같은 오염 물질과 연결되어 출몰하는 영혼과 인간의 마주침을 통해 드러나는 정동적 흐름을 추적해서 기술하며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라 아메드의 ‘끈적끈적한 정동’,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적 수행성’ 개념을 분석틀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1S1A5B5A16078297),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2023.6.2.)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김태우, 오은정 선생님과 세 분의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鄭鍾珮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jongminjeong@gmail.com
투고일: 2023. 11. 30. 심사완료일: 2023. 12. 12. 게재확정일: 2023. 12. 2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5..141>

사용한다. 그리고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상응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현듯 출몰하는 쉽게 환대할 수 없는 영혼과의 마주침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돌봄의 정동적 세계를 제시한다. 더불어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질서에 깊숙이 배태되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기존의 언어·이념·가치·제도 등을 도구로 끊임없이 탈주하는 현장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영혼을 퇴치의 대상이라거나, 금방 사라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영혼과의 정동적 관계 맺기를 통해 일상의 돌봄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돌봄 연구에 유령학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인류학적 상상력과 실천을 제공한다.

핵심어 | 똥, 영혼, 환대, 돌봄, 정동

I. 들어가며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인지증¹⁾ 돌봄을 추동하고 견인한 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물음에 돌봄노동자는 왜 죽은 혹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영혼(靈魂)을 떠올린 것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이자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는 도덕적 붕괴에서도 돌봄을 추동한 요인과 영혼의 출몰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팬데믹 동안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돌봄대화 중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 혹은 이상한 느낌 등으로 불현듯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 유령(幽靈)같은 존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을 고민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현대의 기술과학과 가치 체계를 통해서는

1) 이 논문은 치매라는 질병명이 부정적인 인식·편견·모멸감 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공 정책·문서·제도·기관명 등을 제외하고 ‘인지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현상의 재현과 분석을 넘어 반성과 성찰이라는 인류학적 실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

이해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부재의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으로 다가왔다.²⁾ 그렇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순간 언급되고 또 출몰했지만, 이후 돌봄대화의 분위기를 뒤바꿀 정도로 힘과 전염성이 강한 정동적 역동성(affective dynamics)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은 한번 몸에 달라붙으면 딱 꼬집어서 지적할 수 없지만, “달라붙어서(sticky)” 그 여운이 몸에 깊게 공명했다.³⁾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또다시 형체도 없이 사라져 규정할 수 없고 파악하기도 힘들어 끝없는 의구심과 마주해야 했다. 그야말로 언어·담론·감정으로는 쉽게 포착하기 어렵지만,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횡단하며 “정동하고 정동되는” 신체능력이자 존재역량으로서의 힘이 물질화되는 현상이었다.⁴⁾ 놀라운 것은 팬데믹 동안 돌봄의 추동력과 과정을 묻는 질문에 영혼을 언급한 돌봄노동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드러났던 돌봄 부정의 및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분석이 쏟아졌다.⁵⁾ 하지만, 국내 돌봄 연구에서 영혼, 유령, 요괴, 환영, 악귀 등의 출몰 및 그들의 역할을 살펴본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커먼즈로서의 돌봄과 자본화·외주화·여성화된 돌봄에 관한 진단과 대안은 상당히 축적되었다.⁶⁾ 하지만 위태롭고 취약한 바로 지금.

2) Ironside, Rachel, “Feeling Spirits: Sharing Subjective Paranormal Experience through Embodied Talk and Action,” *Text and Talk* 38(6), 2018, p. 709.

3) 사라 아메드,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57쪽.

4)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12쪽.

5) 김희강·박선경,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학보』 제55권 제2호, 2021; 서원주, 「돌봄과 부정의: 불평등한 돌봄 책임 분담에 대한 고찰」, 『사회와 철학』 제46집, 2023.

6) 박윤혜·백일순,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1호, 2021; 백영경, 「돌봄소득(Care Income)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 『NGO연구』 17권

오늘을 사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혹은 동력이 어디에서 생성하고, 어떻게 작동하며, 확산 또는 위축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⁷⁾ 이 연구가 지난 팬데믹 동안 돌봄노동자와 수행했던 돌봄대화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비물질적인 돌봄의 ‘얼굴’인 영혼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 동안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대화에서 출몰했던 영혼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며, 어떻게 비물질적인 돌봄 세계를 구성하고, 만드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쉽게 이해되지도, 설명되지도, 범주화되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영혼들을 전근대적인 미신이나 비존재적인 유령으로 간주하고 퇴치의 대상으로 내모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돌봄노동자가 영혼과 마주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상품화된 돌봄 경제와 어떻게 얽히고설키며, 정동적 실천으로 발현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더불어 유교적 가부장제와 후기 자본주의적 질서 아래 깊숙이 배태되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역으로 유교적·자본주의적 언어·이념·가치·제도 등을 도구 삼아 끊임없이 탈주하려는 시도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주체화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기술·사물·기계·환경을 포함하는 비인간적 행위소(行爲素), 특히 영혼과의 관계적 돌봄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나아가 인지증 돌봄에 있어 영혼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드러나는 돌봄의 비물질성에 관한 새로운 인류학적 상상력과 실천을 제공한다.

2호, 2022; 백영경,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창비, 2022.

7) 정종민, 「비접촉시대에 돌봄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위태로운 기술로서 정동적 부정의」, 『한국문화인류학』 55권 3호, 2022; 정종민, 「결여/부재의 정동적 욕망: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68권, 2023.

II. 정동적 달라붙음으로서 영혼과 관계 맺기

일본의 여성요괴 아마비(アマビエ, Amabie)나 중앙 안데스 지역의 살아있는 죽은 자(*Condenados*, the living dead)를 달래거나 쫓기 위한 매듭 (*kipu*, a knotted cord) 민속 등 해외에서는 팬데믹 동안 다양한 영혼·유령·환영·악귀 연구가 수행되었다.⁸⁾ 하지만 기존의 유령 구비문학 및 설화문학을 바탕으로 한 민속학적 연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령 연구는 조명받지 못했다. 소위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로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출몰하는 영혼에 관한 관심은 소홀했다.⁹⁾

인류학의 상황도 비슷하다. 자크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이 출판된 이후 최근 30여 년간 영혼·유령·환영 등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Annual Reviews* 학술지에서 제공한 유령학 리뷰는 유령 및 유령의 출몰에 따른 경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¹⁾ 2021년 *Anthropological News* 9/10월호는 “새로운 인류학적 유령학을 위한 선언(A Manifesto for a New Anthropological Hauntology)”을 제시하기도 했다.¹²⁾ 이를 통해

8) Merli, Claudia, “A Chimeric Being from Kyushu, Japan: Amabie’s Revival During Covid-19,” *Anthropology Today* 36(5), 2020; Hyland, Sabine, Christine Lee, and Roberto Aldave Palacios, “Khipus to Keep Away the Living Dead,” *Anthropology News*, 2021.

9)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Wagner, Roy, *The Invention of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10)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11) Good, Byron J.; Andrea Chiovenda; Sadeq Rahimi, “The Anthropology of Being Haunted: On the Emergence of an Anthropological Haunt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1, 2022, p. 438.

12) Spooner-Lockyer, Cassandra and Katie Kilroy-Marac, “Ten Things about Ghosts and Haunting,” *Anthropology News*, 2021.

여전히 식민주의, 자본주의, 노예, 인종차별, 폭력, 환경파괴, 세계불평등, 역사적 트라우마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류학적 연구 및 민족지(民族誌) 작업이 중요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유령의 출몰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며 형성되는 신체적 경험을 “정동적 상태(an affective state)”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유령의, 유령에 대한 연구에서 유령이라는 인간 너머 신체와 마주하면서 생성되는 정동적 세계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식론적·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했다.¹³⁾

한편 한국과 관련된 인류학적 작업에는 조 그레이스(Cho Grace M), 한 클라라(Han Clara), 권현익(Kwon Heonik)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이후 떠도는 영혼들, 그리고 이광규의 조상령 연구에서 출발해서 최길성·로렌 켈달(Laurel Kendall)·김성례로 이어지는 무교 및 여성 무당 연구가 기억과 트라우마, 가족과 친족, 종교인류학, 구술생애사적 관점에서 수행되었다.¹⁴⁾ 하지만, 팬데믹 과정에서 출몰하는 영혼·유령·환영들에 대한 유령학적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적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기원·구조·연행 그 자체에 관한 기술·분석·보존에 머물지 않고, 기억과 의례적 실천을 구성하는 현장성·일상성·관계성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을 현실 세계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영매로서 무녀(무당)에 관심이

13) Good·Chivenda·Rahimi, op.cit., p. 439.

14) Cho, Grace M.,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Han, Clara, *Seeing Like a Child: Inheriting the Korean War*,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0; Kwon, Heonik, *Ghosts of War in Vietna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이광규, 「친족집단과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회』 9, 1977; 최길성,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민속원, 2010; 로렌 켈달, 김성례·김동규 역, 『무당, 여성, 신령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의례적 실천』, 일조각, 2016.

집중된 점 또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특히 여성 신앙인이 한국의 유교적 가족문화·근대화·금융위기·세계외환위기 등,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잊힌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실천에 이르는 역동적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탁월하다.

이 연구가 돌봄대화에서 출몰하는 영혼과의 관계 만들기를 끈적끈적한 정동을 통해 접근하고 분석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아메드의 “달라붙는(접착성이 있는) 것, 즉 관념·가치·대상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것”으로서 발현되는 끈적끈적한 정동 개념은 이 연구의 유용한 발견적 도구 및 인식론적·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한다.¹⁵⁾ 한마디로 이 연구는 영혼을 육체라는 물질적 조건없이 존재하는 ‘부재의 존재’로서 아메드가 제시한 끈적끈적한 정동처럼 인간과 인간 너머 신체들 사이, 옆, 주위를 경유하거나 때론 달라붙어 공명하고 울리는 파동, 흐름, 힘으로 경험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비물질적 존재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영혼, 유령, 환영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는 영혼, “죽은 사람의 혼령(魂靈)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상”은 유령,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환영(幻影)을 사용한다.¹⁶⁾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정제된 언어로 규정되는 감정 너머 인간과 비인간 신체들이 마주하면서 생성하는 관계들의 뒤엎힘, 즉 정동적 배치(affective arrangements)에서 파생하여 상이한 강도로 표현되는 변화 무쌍한 신체적 역능에 주목한다. 여기서 배치는 분산적 행위성(distributive agency)을 지닌 다양한 행위소들 간의 우연한 결합 혹은 연합으로 구성되며, 끊임없는 관계적 재구성을 통해 행위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것을 나타

1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57쪽.

16) 국립국어원, (nd), 영혼, 유령, 환영,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https://stdict.orean.go.kr/main/main.do>.

낸다. 그럼으로써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존재가 구체화되는 정동의 표현적·수행적 흔적을 추적하고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돌봄의 맥락에서 보면 돌봄의 사회적·물질적 환경, 분위기, 영혼 등의 배치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다양한 행위 가능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통해 기존의 목소리 없는 수동적인 필수노동자로 간주하던 시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도덕적 붕괴 상황에서도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도약하려는 돌봄노동자의 전복적인 윤리적·정치적 존재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이 연구는 ‘인지증 돌봄의 공공성 연구’의 일부분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광주·전남지역 사회서비스원과 재가복지센터의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돌봄대화를 중심으로 다뤘다. 돌봄대화는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친밀한 돌봄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의 돌봄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¹⁷⁾ 팬데믹 동안 돌봄을 추동한 힘과 과정에 관한 개인적 경험에 주목했으며, 계획된 질문을 하기보다는 돌봄노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돌봄노동자가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약 60~90분 돌봄대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 6월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인간 너머 인지증 돌봄의 얼굴들”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행위소에 대한 의견을 계기로 현지조사 과정과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인간

17)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2016, 21쪽.

너머 존재들, 그중에서도 영혼, 유령, 환영과의 정동적 마주침을 통해 발현되는 행위성과 물질화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면담자료, 조사노트, 구술채록문을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인간과 영혼 간의 마주침을 포착하였으며, 이들 신체들이 마주하고 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강도의 감정적·감각적·정동적 움직임·흐름·궤도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화자의 목소리, 태도, 움직임, 침묵 등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적이며 수행적인 정동적 실천은 분석의 중요한 자료이자 근거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명의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정동적 동역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간-행(intra-action) 개념에 기반한 행위적 실재론(agenial realism)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다. “간-행”은 인간과 비인간, 관찰자와 관찰대상자 등이 이미 독립적으로 주어진 존재로서 “상호작용(inter-action)”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침의 과정, 즉 깊이 얽히고설킨 신체들 간의 “상호구성(mutual constitution)”을 의미한다.¹⁸⁾ 다시 말하면 행위적 실재론에 있어 존재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현상(phenomenon)’으로 간주되며, 이 현상은 ‘알기(knowing)’와 ‘되기(becoming)’라는 상호 긴밀하게 얽힌 물질적·담론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여기서 다루는 실재(reality)란 독립적인 사물·물질·기계·환경·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경계 구분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경계를 횡단하며 서로 얽히면서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현상으로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고 생산되는 생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연구자, 돌봄노동자, 영혼 등이 “인식론적으로”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상황적이며, 우연적이며, 관계적인 간-행을 통해

18)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 32-33.

드러나는 현상이 “존재론적으로” 분리 불가능함을 의미한다.¹⁹⁾

마주침을 통해 수행되는 알기와 되기를 읽어내는 방식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참조했다. 버틀러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구분을 거부하고 주체란 행위의 원인 혹은 기원이 아니라 행위·행동·표현 등 수행을 통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서 “젠더 수행성” 개념을 제안했다.²⁰⁾

특히 버틀러는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의 근본적 단절을 거부하며 횡단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내재적인 성 혹은 정체성 개념과 담론을 영구적으로 문제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식-담론-권력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이들을 관계적인 재배치의 효과로 봄으로써, 권력(작용)이 편재한 어느 시간·장소·위치에서도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표 1〉 주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2022년 7월)

이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직업 및 직장	이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직업
차지후	남	46	5	요양보호사 ㉸	이정희	여	60	6	요양보호사 ㉸
김명희	여	52	11	요양보호사 ㉸	오은영	여	60	7	사회복지사 ㉸
정수빈	여	50	12	요양보호사 ㉸	김은경	여	69	6	요양보호사 ㉸
정정희	여	44	5	요양보호사 ㉸					

*비고: ㉸ 사회서비스원, ㉸ 재가복지센터.

19) 조주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권, 2016, 75쪽.

20)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338쪽.

요약하면 겉보기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자와 영혼과의 정동적 마주침은 행위적 실재론과 젠더 수행성 분석들을 경유하면서 인식론적·존재론적·윤리적·정치적 문제로 재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돌봄의 비물질적 정동 세계를 재구성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관계적 불평등이 발현되는 맥락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의 주요 참여자는 아래와 같다(표1).

IV. 오염물질과 모욕 그리고 출몰하는 영혼들²¹⁾

어르신들 물고 뜯고 핏대하고 침 뱉고 그냥 이런 게 일상이예요. 가족이 케어(돌봄을) 못하거든요. 그냥 “야! 이년아! 저 잡년이 아주 나를 밥도 안 먹여줘!” 이런 부분들, “쌍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요 그냥 호칭이예요.(김명희, 2021.9.1)

김명희는 돌봄노동 인력의 대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부당한 노동현실과 모욕에 “익숙해져 ……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 (부정의한) 현실에 무감각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마디로 김명희가 분노하면서 말하듯, 돌봄시장에서 돌봄노동자의 위치는 가부장적 문화와 자본주의 경제하에 형성된 시선이 얽히면서 돌봄은 보잘것없는 일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평가 저하와 낙인의 과정에서 듣는 모욕적인 언사는 일상의 “상징적 폭력”으로 작동했다.²²⁾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친밀함·사랑·헌신·애정으로 포장된 형식만 남은 노동관계는 생계수단을 ‘통제’하는 거대한 질서에 내재하면서 “자기파괴적 순응”을 강요하는 “오인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 돌봄을 지속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²³⁾ 하지만

21) 4장에서 제시될 김명희, 김은경, 정수빈, 이정희, 오은영, 정정희, 차지후와의 돌봄대화에 대한 분석은 앞서 인용된 정종민의 2022년 논문을 참조.

22) 신유정, 「돌봄과 모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7(1), 2021, 233쪽.

앞으로 제시될 4명의 돌봄노동자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돌봄대화 중 놓칠 수 없었던 느낌, 미약하지만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때론 언어로, 때론 표정으로, 때론 몸짓으로 표현하고 수행하는 비인간적 존재, 즉 영혼의 출몰에 관한 것이었다.

1. 정수빈과 큰오빠

그나마 제가 이 밥벌이 이외에 (돌봄)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큰오빠가 식물인간으로 3년을 살다가 갔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 놓고 묵혀 두는 사람도 있는데 더럽다고 못하고, 기저귀 못 갈아입힌다고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쩐지 귀여워요. 목욕 팀에 있었을 때예요. 어르신들을 씻기고 목욕시키면 좀 예뻐요. 대변을 봐요. 목욕 중에 대변을 봐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쓸어내려요. 어르신은 어떤 정신 상태든 치매든 어찌든 다 감당이 돼요. 사실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적응이 돼요.(정수빈, 2022. 3. 1)

정수빈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눈길이 가는 것은 상황과 정도는 다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돌봄노동자로서 그의 삶에 일견 공감이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의 가부장적 가족의 2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정수빈은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았지만, 입학은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하는 부모와 나머지 형제들, 특히, 아들만이라도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했던 부모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데아’ 같은 노래를 즐겨 들으며 기성세대 가치관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

23) 신유정, 위의 논문, 227쪽.

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해 자립했고, 여자라며 홀대했던 부모가 싫어 결혼도 서둘렀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교육, 돈 버는데 소질이나 관심이 부족했던 남편을 믿고 시작한 농장과 자동차정비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부업으로 식당 일을 시작했으나 건강 악화로 힘들게 되자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2010년 제1회 영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실습 과정에서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똥을 치우는 자신을 발견하며, 돌봄을 ‘천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아들 모두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했다.

어떻게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정수빈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큰오빠를 떠올렸다. 이혼 후 건강이 나빠져서 먼저 간 큰언니는 화장해서 바닷가 어딘가에 뿌려져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큰오빠는 부모를 대신해서 정수빈이 지금까지 별초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다. 그는 그 오빠를 이야기했다.

2. 이정희와 시어머니

엄마가 똥을 만지고선 얼른 손을 씻자 하시면 얼른 씻어야 하는데 그거를 반항을 거의가 다 해요…… 욕뿐만이 못해요. 그냥 얼토당토 없는 욕, 아들이 이 와도 욕해요. 가라고 내쫓아요. …… 그 할머니가 무섭게 생겼어요. 행동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전 오래 겪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1급으로 오랫동안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5년 있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영양보호사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인제 거기서 좀 도움이 되었어요.(이정희, 2022.3.5)

파킨슨성 인지증과 사는 채수정 할머니와 경도 인지증과 사는 남편을

동시에 돌보는 이정희의 돌봄은 똥과 욕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었다. 채수정은 남편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기는커녕 손이 떨려서 수저를 쥐는 것도 힘들었다. 두부, 시금치, 계란말이 등 반찬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씹던 음식물이 입가로 흘러내리기 일쑤였다. 남편은 팬데믹 초기에 욕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정희는 남편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수정의 돌봄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팬데믹 이전에는 인근 지역에 사는 시누이나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강화되자 두 명의 돌봄을 홀로 수행하게 되면서 이정희는 거의 소진 상태에 이르렀다. 기독교 신자인 그의 안식 공간이던 예배마저 폐쇄되자 그야말로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하며 하소연하는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의 돌봄 세계는 다양한 인간 너머 물질·사물·기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들은 중층적인 의미로 번역되고 또 상이한 부름에 대한 응답과 조율을 요구했다. 안타깝게도 보통 이 과정은 꽤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때론 갈피를 못 잡은 채로 지나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채수정에게 밥, 숟가락, 두부, 시금치, 계란말이, 똥, 이불, 벽 등은 일상에서 통용되는 의미, 즉 먹거나, 씹거나, 배출하거나, 덮거나, 보호하는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실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심지어 TV와 선풍기같이 전기제품의 전선과 콘센트는 무작정 뽑거나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등 심각한 위험물이 되었다. 이렇듯 일상의 인간 너머 종들은 채수정에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통을 요구했다. 똥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채수정은 2년 전부터 대변도 구별하지 못해 방바닥에 흘려놓거나, 벽이나 이불에 똥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나, 무슨 귀한 ‘선물’인양 화장지로 곱게 포장해서 서랍에 ‘보관’해 두거나, 이정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정희는 채수정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화장실에 몰래 똥을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체화된 이정희의 돌봄 기술이었다.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수정은 누구보다도 빨리 자신의 처지를 상대방의 표정, 감정의 변화, 분위기 등을 통해 알아차리는(느끼는) 듯 욱으로, 예상하지 못한 과격한 행동으로 대응했다. 물론 이러한 일상의 인간 너머 종들이 항상 돌봄의 방해 요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채수정이 한참을 악다구니를 치며 욱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나물을 다듬어 달라거나, 빨래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능숙한 솜씨로 이정희의 일을 거들어주었다. TV에서 익숙한 노래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내기도 했다. 이렇듯 이정희는 부탁, 회유, 거짓말, 공모, 설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했다.

이정희는 남편의 정년퇴임 이후 용돈벌이로 시작한 돌봄이 이제는 자신을 삼킬 만큼 ‘무서운’ 존재가 되었음을 토로했다. 그가 누워있는 남편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굳이 이정희가 남편뿐만 아니라 채수정의 돌봄을 수행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인 이해로 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봄을 지속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이정희는 “돌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라며 시작한 이야기는 1남 4녀 중 장남인 남편과 결혼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인지증 1등급과 마찬가지로였던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셨던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정희는 돌봄은 상상이나 이론으로 배울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실에서 부딪히고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혼자서 밥도, 물도, 하물며 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똥은 누가 치우겠냐고 반문했다.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눈 가리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정이 들었어요.”라며 어떻게 자기만 살자고 채수정을 버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짧고 간명한 말이었지만 거기에는 연구자가 선불리 다가갈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떤 목직한 것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떼려야 뗄 수 없었던 그 정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오랫동안 돌봄을 수행하면서 슬픔, 증오, 기쁨, 보람 등 여러 감정이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엮이면서 이정희의 신체에 켜켜이 쌓이고 체화되어 돌봄으로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 기저귀를 갈거나 빨아야 하는데 여든이 넘도록 부엌일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채수정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며 서투르게 일 벌이느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정희 자신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워 가까이하기 싫지만, 역설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정희 자신밖에 없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하나의 도덕적·윤리적 실천으로서 돌봄을 수행했다. 그리고 하루 36시간도 모자라는 이정희의 돌봄은 외상 상태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오빠/아버지에게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시누이와 자식의 말을 듣고 난 뒤에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3. 오은영과 (시)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왜 그러냐면 부모 마음은 그래 하는데, 자식은 진짜 부모의 10분의 1도 못 하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 때가 많아요. 진짜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전혀 그런 걸 이해를 못 했으면 이런 (재가복지센터) 일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시)어머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모 마음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안 하고, 인지상정이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오은영, 2022.3.11)

오은영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돌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 항상 솟아나는 불충분함, 뭔가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었던 진한 아쉬움과 회한 같은 것이 가슴에 응어리져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는 죽어서도 다

값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시)부모로부터 받은 고마움·은혜·선물을 조금 이나마 되갚고자 하는 정동적 욕망으로 승화되었다. 8남매의 막내와 결혼한 오은영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 공무원으로 일했다. 결혼 후 짧게 “시집살이”를 했지만, 곧 분가했으며, 막내며느리였기에 시부모를 모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자, 그는 가족 중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며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나섰다. 모른 척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삶이 과연 편안할 수 있겠냐며, 자신보다는 가족의 “평화”를 위한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나아질 것 같은 일상이 얼마 후 친정어머니도 노환으로 앓아눕게 되면서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회계·사무·행정 일을 도왔지만, 이마저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건강까지 악화되어 재활하는 과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발견’하였으며, 친구의 권유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왜 돌봄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쉽 없는 돌봄을 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오은영은 에둘러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할 정도로 아파본 다음에야 병들고 나이든 부모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내리사랑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로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선뜻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듯이, 남편과 함께 건설업을 청산하고 하늘재가복지센터를 새롭게 시작했다.

4. 김은경과 수급자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하고 할아버지는 항상 뒤에 (목욕을) 시켜요. 그래 갖고 할머니를 시키는데 그날따라 “엄마! 내가 엄마 목욕하러 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챙겨 놔어!” 하며 항상 문을 열면서 어르신이 꼭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거든요. 휠체어에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면 이제 일어나서 앉아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날따라 그 어르신이 ……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손을 다쳤어요. 이 손이 많이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매 저기 엄마야 아버지 손이 많이 다쳤네?”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마루에 앉아 있고 제가 가서 “어르신!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을 놓으니까 퍽 하고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으시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입을 딱 돌리시길래 입을 이렇게 받쳐주고,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차로 가가지고 (센터) 선생님한테 “선생님! ○○○ 지금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 갖고 119에 빨리 신고하라고 신고를 했어요. …… 할머니는 마루에 계시고, 못 봤죠. 저만 보고. 그래 갖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심폐소생술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인자 몸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어 드리고,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숨을 안 쉬는데 그리고 제가 딱 저렇게 입을 벌리는 것을 다물어 드리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센터)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 갖고 119에 신고해 갖고 …… 못 잊겠더라고요.(김은경, 2022.3.10)

돌봄대화에 출몰한 영혼은 생전에 ‘친밀’했던 (시)부모나 형제자매뿐만이 아니었다. 김은경은 돌봄노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처음 마주했던 죽음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오은영과 마찬가지로 대학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직종인 돌봄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군인과 결혼한 여자의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결혼 직후 김은경은 결혼반지를 제대로 꺼본 적이 별로 없었다. 남편의 ‘성공적인’ 군 경력을 위해 그는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받았다. 그래서 시작한 일은 부대 청소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청소 등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김은경이 신경 쓴 것은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었다. 때로 그의 신흠집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임시 숙소가 되기도 했으며, 매일 싸던 도시락은 남편과 두 아들을 포함해서

돌보던 청소년의 똥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그중 하나였다.

김은경은 남편이 정년퇴임 하면서 오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고 해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2년여 동안 투병했으며, 그중 중환자실에서만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간병을 묵묵히 하던 김은경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지인이 돌봄 일을 추천했다. 돌봄 일을 하면서 김은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월급 명세서를 받았다. 다행히 남편도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혼자 거동할 정도가 되었지만,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은 자신이 감염에 취약한 아픈 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대에서 몸이 밴 ‘위생원칙’에 따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쓰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었다.

왜 남편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냐는 질문에 김은경은 돌봄노동 초창기에 만났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제는 임종이 다가오면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임종이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지만, 손을 잡고 조용히 귀에 속삭이며 “편안히 잘 가시라!”며 기도하고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던 것이 마냥 축스러웠던 그때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마주했던 임종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뭔가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내드려야 하는 아쉬움이 가슴 깊이 남아 쉽게 떠나지 않았다. “아줌마”라고 호칭하며, 함부로 대하는 수급자 가족들로부터의 모욕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견디게 할 정도로 그 마주침은 잊으려야 잊을 수도 없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한 여운으로 신체에 달라붙어 불현듯 나타났다.

V. 선물과 주체 담론을 횡단하는 공-산(sympoiesis)

돌봄대화에서 끊이질 않고 언급되는 똥, 오줌, 구토, 고름은 돌봄노동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힘들고 구역질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책을 했을 터인데 팬데믹 동안에는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어 걱정은 더했다. 단적으로 정정희에게 돌봄은 참기 힘든 “끔찍한” 냄새를 견뎌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기저귀를 찬 남성 어르신의 방은 지린내가 항상 배여 있었다. 여름이면 퀴퀴한 냄새까지 더해지고 대변이 겹치면 마스크를 쓰고도 냄새가 지독했다. 그리고 여기에 욕창까지 생기면 냄새에 어지간히 훈련된 정정희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욕창은 “파리가 똥을 싸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다가 잘못 건드려 터지기라도 하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피부는 짓물러지기 일쑤고 여름철이면 세균 감염으로 고름까지 생기기 쉬우므로 수시로 자리를 바꾸고 철저히 소독을 해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름과 피부가 매트와 서로 엉겨 붙어 살점을 드러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욕창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묘사했다. 한마디로 정정희에게 팬데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날씨, 냄새, 욕창, 모욕 등이 얽혀 만들어내는 예측 불허의 ‘재난’을 취약한 상태로 마주하고 또 견뎌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자기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 요양보호사라면 좋은 처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기억해 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낮은 임금에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막 ‘똥 치우는 아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차지후 2021.9.3)

차지후는 “똥 치우는 아줌마”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존중받지 못한 돌봄은

자본과 권력이 새롭게 결합해서 만든 건강 및 사회복지 체제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자립하기 힘들고 취약한 인지증과 사는 사람은 이제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시간으로 환산되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국가를 대신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신체에 부과된 책임과 임무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다양한 돌봄인 즉,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놀이활동지도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미용사, 안마사, 장의사 등을 통해 실행되며, 의료적·치료적·위생적·미학적·유희적 목적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시듯 사랑·애정·헌신·친밀감을 포함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현상이 되었다고 피력했다. 돌봄사회화는 자본화·상품화·시장화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신체에 부여된 일종의 “몸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을 가능한 은밀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길 요구받는 “더러운 일”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낮은 자긍심을 보여주는 “젠더화된 일”이 되었다고 비판했다.²⁴⁾ 캐슬린 린치(Kathleen Lynch)는 “누가 과연 돌봄을 수행하는가”라는 아주 간단한 물음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돌봄 구조의 핵심을 찌른다.²⁵⁾ 지금의 돌봄 위기는 ‘보이지 않는 심장’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에서 친절, 공감, 감수성 등이 요구되는 ‘사랑의 노동’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젠더화된 불평등을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정동 체계, 특히 그중에서도 사랑·헌신·공감·친절 등을 추동하는 정동의 불평등을 고발한 것이다. 사회적 돌봄에 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도덕적 붕괴 상황에서 지속되는 돌봄을 추동하는 과정에 관한 인류학적 현장 연구로 이어졌으며,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뤘던 영혼과의 마주침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마주침의 궤적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의 이음·교차·횡단처럼

24) Twigg, Julia, “Carework as a Form of Bodywork,” *Ageing and Society* 20(4), 2000, pp. 389, 391, 405.

25) 캐서린 린치 외, 앞의 책, 5쪽.

아무런 반응이 없던 존재들이 때로 점선처럼 약하게 연결되다가, 때론 두껍고 단단한 실선처럼 연결되듯 엷히고설킨 역동적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크게 편재성, 혼종적 시간성, 공-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수빈, 이정희, 오은영, 김은경 모두 인간 너머 종들, 특히 영혼과의 관계 맺기는 언어로는 쉽게 표상할 수 없으며,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신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정동하고 정동되는 움직임을 통해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언급했듯이, “유령이 출몰하지 않는 장소는 없다. …… 우리는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에서만 살 수 있을 뿐이다.”²⁶⁾ 그리고 그 끈적끈적함의 근저에는 유교적 가족문화와 자본화·여성화된 돌봄에서 배태된 정수빈의 “정(情)”, 이정희의 “고마움”과 “정”, 오은영의 “깨달음”과 “인지상정”, 김은경의 “아쉬움”과 “미안함”이라는 애매모호한 감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애증의 은혜, 증여, 고마움 등에 대해 되돌려줘야 할 혹은 되돌려줘야 할 것 같은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표현되고 수행되었다. 이는 똥으로 표상되는 ‘오염물질’이 추동하는 혐오감뿐만 아니라 소진에 이르는 노동을 견디게 할 만큼 강도의 정동을 드러냈으며, 지속적인 돌봄을 견인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영혼과 조우할 때 개별 돌봄노동자들의 음성과 태도가 사뭇 다르듯이, 신체를 경유하며 표현되고 수행되는 정동적 실천은 상호호혜적이지 않았다. 대칭적이지도 않았으며, 유유하게 흐르지도 않았다. 단적으로 정수빈에게 큰오빠는 환대할 수만 없는 께끄러운 영혼이며, 편안한 큰오빠로 조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넘어서고자 하는 전통의 상징이었다. (시)부모를 모셨던 이정희, 오은영, 김은경은 한결같이 요즘 누가 (시)부모를 모시냐며, 며느리(딸)에게 “독박”으로 주어진 돌봄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김은경은 “(시)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자식한테 잘해야지,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샌드

26) 미셸 드 세르토, 신지은 역, 『일상의 발명: 실행의 기예』, 문학동네, 2023, 214-215쪽 (Spooner-Lockyer and Kilroy-Marac, op.cit., 2021에서 재인용).

위치 세대”로 태어난 자신들에게는 돌봄이 자라면서 배워 체화된 것이라 당연시하지만 지금은 어렵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다른 돌봄노동자와는 다르게 김은경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본화된 돌봄을 통해 만난 이해 당사자라는 점이다. 당연히 김은경이 뇌졸중에서 회복한 남편뿐만 아니라 취약한 노년부부 돌봄을 지속한 이유는 자본주의적 선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이 점에서 지속적 돌봄의 추동력을 친밀한 (가족) 관계 사이, 혹은 돌봄 제공자와 수급자간의 장기적인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일종의 선물교환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젠더·세대·문화 갈등, 권력과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 역으로 돌봄노동자가 지배적인 사회적·문화적·자본적 질서 밖에 존재하며 자율성을 휘두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언뜻 보면 돌봄노동자는 가부장적·군인 가족의 위계적·자본주의적 질서에 힘없고 무기력한 돌봄노동자이자 돌봄부정의한 현실에 오인된 해석을 전유함으로써 공모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앞 장에서 기술했듯이 돌봄대화는 인간 너머 오염물질과 영혼의 마주침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돌봄은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북서아메리카,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의 부족사회에서 발견한 “주기-받기-답례”하기라는 사회적 의무로 구성된 호혜적 교환과 유사한 듯하지만, 결이 다르다.²⁷⁾ 정수빈의 경우 유교적 가정에서 요구받았던 큰오빠의 돌봄 경험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생존 수단이 되었으며, 그 만의 독특한 돌봄철학을 세우는 기초가 된 건 분명하다. 여기서 정수빈에게 큰오빠는 사회화 과정에서 배태되고 체화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습·생활양식의 상징으로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정동적 욕망을 표출하고 수행할 수 있게끔 추동하는 매개자였다면, 이정희는 채수정을 보며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와 외상 상태인 남편의 얼굴을 초대했다. 때려고 해도 이정희의 신체에 끈적

27) 마르셀 모스, 이상률 역, 『증여론』, 한길사, 2002, 28쪽.

끈적하게 달라붙어 뗄 수도 없는 시어머니와 채수정, 그리고 채수정 집의 사물 기억들이 중첩되어 출몰했다. 이정희에게 이러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너머 존재들과 얽힘은, 이정희가 당연히 시부모를 모셨듯, 도덕적 명령이 되어 채수정을 향한 필연적 돌봄을 추동했다. 이것은 이정희의 신체를 관통하며 평생 동안 켜켜이 쌓여 체화한 삶의 양식·가치·믿음 등이 팬데믹이라는 사회적·의료적 위기와 마주치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은영도 이정희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떠올렸다. 오은영은 크게 아픈 이후로 돈도 중요하지만, ‘내리사랑’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성장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돌봄을 만났다. 김은경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수급자 할아버지의 임종은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부족했던, 아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돌봄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쉬움이 깊은 여운으로 신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은 김은경에게 돌봄은 여성의 육체노동을 넘어 삶으로서의 노동을 실천하고 자아를 재구성하는 현장으로 변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사회봉사 활동이 남편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면, 이제는 돌봄이라는 삶을 곧 실행하는 몸 쓰는 지성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돌봄은 애도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제사’가 아니다.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위한 ‘살풀이’도 아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돌봄노동자를 따라다니며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돌봄노동자가 영혼으로부터 받은 ‘환대’는 오히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언급한 되돌려줄 수 없는 환대 불가능한 증여가 되어 끊임없이 돌봄노동자를 “강박”하는 듯하다.²⁸⁾ 그리고 강박으로 기술되는 불현듯 출몰하는 영혼은 망각의 강을 건너서야 다다를 수 있는 명계(冥界)처럼 명확히 구분되지도 선형적으로

28) 자크 데리다 · 안 뒤푸르망텔, 이보경 역,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2023, 8쪽.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바라드의 ‘현상’적 관점에서 볼 때 4명과의 돌봄대화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즉 이승과 저승,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은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닌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으며, 도래하는 미래를 괴롭히거나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데리다적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과거의 영혼은 결코 지금-여기에서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래의 전조를 품고 있었다. 지금까지 걸으며 쉽게 말할 수 없거나, 침묵을 강요받았던 생애사적 돌봄 경험들이 소환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의 돌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무엇보다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오늘의 자본화된 돌봄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기술로 작동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모욕조차 교묘하게 오인되어 자기파괴적 순응을 체화하고 수행하는 공모자로서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버틀러의 젠더적 수행성은 돌봄노동자를 침묵하게 하거나,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현장에서 기존의 제도·관습·이데올로기의 경계를 횡단하며 틈을 만들어내는 사이보그적 돌봄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이는 똥, 고름과 함께 상처 입은 기억으로 불현듯 출몰하는 영혼과의 마주침이다.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때로는 거대한 파도의 기세로 신체를 경유하여 파동을 일으키는 이 정동은 마주하는 영혼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고통’을 넘어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볼 수 없으면서도 볼 수 있는, 감각할 수 없으면서도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서 누구에게는 (시)어머니, 누구에게는 오빠, 남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로 출몰하는 영혼들과 함께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본화·상품화·여성화된 돌봄 질서에 목소리 없는 돌봄노동자도, 유교적·자본주의적·군의 위계적 질서를 벗어나 존재하는 자율적인 주체도, 지배적인 질서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공모자라는 불박인 존재도 아니었다. 오히려 취약하고 위태로워 의존하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시공간의 구별을 횡단하며 인간 너머 존재인 영혼과 공존을 통해 오늘의 돌봄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공-

산”이었다.29)

이러한 돌봄의 정동적 세계의 확장은 현행의 인간중심적 인지증 돌봄을 성찰하고 인간 너머 돌봄, 인간-기계-사물-물질-환경, 특히 영혼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횡단하는 사이보그적 돌봄의 생성적·창발적 힘의 발견을 의미한다. 팀 잉골드가 강조하듯 이는 단순히 인간-비인간 간의 연결망(network)의 시각적 재현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얽히면서 생성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물세공(meshwork)의 궤도를 추적하고 그 생동하는 살아있음을 비물질적 돌봄의 정동세계 만들기의 과정으로 제시하는 작업이다30). 특히 일상의 정동적 얽힘 과정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인간 너머 존재의 하기(doing)에 주목함으로써 인간-비인간의 어셈블리적 배치에서 생동하는 물질성을 드러내고, 인간과 인간 너머 종들의 마주침에서 발현되는 분산적 행위성을 제시했다. 그럼으로써 정동하기와 정동되기로 요약되는 이 마주침은 한 완성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며 한 개체가 지닌 성질이나 힘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제시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드러나는 주고받는 얽힘은 분리 불가능한 간-행이라는 정동적 배치의 효과임을 밝히며, 열린 과정이 갖는 비결정성의 전복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중고령 여성 돌봄노동자의 체화적·정동적 실천은 일상에서 단지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이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탈주를 시도하는 것이다.

29)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07쪽.

30) Ingold, Tim,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Taylor & Francis, 2011, p. 63.

VI. 나가며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멈춤 없는 돌봄을 추동하고 견인한 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돌봄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수많은 돌봄의 얼굴들을 발견하였으며, 여기서는 이 중 영혼에 주목했다. 그리고 중노령 여성 돌봄노동자의 신체를 경유하며 경험되는 영혼과의 마주침이 돌봄의 정동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소가 될 수 있음을 4명의 돌봄대화를 통해 제시했다. 특히 아메드의 끈적끈적한 정동,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 버틀러의 젠더적 수행성 개념을 사용해 영혼과의 마주침에서 드러나는 정동적 궤도를 쫓아 묘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적 돌봄에 깊숙이 얽히고설키 있지만,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양한 영혼들이 참여하는 돌봄의 정동적 세계를 밝혔다.

우선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드러내는 똥, 오줌, 고름, 구토 등 오염물질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물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다.³¹⁾ 1980년대 영국의 톰 키트우드(Tom Kitwood)에 의해 인지증의 인간중심적 돌봄(person-centered care)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³²⁾ 돌봄에 있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오줌, 똥, 고름 등의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물질을 빼놓고는 돌봄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는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고름이나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비앙카 브리즈나스(Bianca Brijnath)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³³⁾ 연구자 스스로 돌봄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31) Isaksen, Lise Widding, "Toward a Sociology of (Gendered) Disgust: Images of Bodily Decay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23(7), 2002, pp. 792-793.

32) Kitwood, Tom, *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 Philadelphia, Pennsylvania: Open University Press, 1997.

33) Brijnath, Bianca, "Alzheimer's and the Indian Appetite," *Medical Anthropol*

필요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이다.

둘째, 돌봄대화에 출몰한 영혼은 아메드가 끈적끈적한 정동을 “**몸, 대상, 기호가 서로 접촉한 역사의 효과**”라고 했듯이, 현시점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별 볼일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³⁴⁾ 오히려 이러한 정동적 마주침은 매우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돌봄에 있어 인간 너머 종과 상응하고 조율하는 움직임의 공고한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끈적끈적한 여운으로 와닿는 이상한 느낌은 신체 표면에 남겨진 접촉의 흔적이며, 인간 너머 비물질적 행위소와의 마주침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역량이며, 존재론적 근거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란 사회적(담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인간과 비인간, 유기물과 무기물, 유형과 무형 등의 신체들이 충돌하고, 교차하고 횡단하면서 만들어지는 미결정적·관계적·열린 마주침의 산물이다. 일상의 돌봄노동에서 불현듯 출몰하는 영혼과 마주하면서 드러나는 울림·공명·파장이 보여 주듯이, 인간과 비인간 모두 이미 주어진 안정적인 독립된 개체가 아니며, 역동적인 형성과 변화를 포함하는 정동적 배치의 효과로서 새롭게 구성되고 생성하는 존재인 것이다.

셋째, 마주침의 정동이 작동하는 특수한 미시정치 혹은 미시관계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제도·관습·질서·이데올로기나, 시·공간적인 변화와 조건에 상응하고 조율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동의 미시적 생태정치를 보여주었다. 쉽게 환대할 수 없는 존재인 영혼을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로 포용하고 동시에 비인간적 존재가 상징하는 가치·문화·풍습·이데올로기를 횡단하며 발전적으로 해체 또는 계승하려는 차이의 정치학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강요된’ 질서를 거부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자본화·외주화·여성화된 돌봄 규칙·제도·이데올로기를 다른 맥락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전유

ogy 30(6), 2011, p. 618.

34)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200쪽, 강조는 원저자.

했으며, 창발적 실천으로 생성·발전함을 제시했다. 이는 세르토가 언급했듯이, 자신을 구속했던 질서를 “안으로부터 전복”시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³⁵⁾ 물론 전복적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은폐되거나 미약해서 때론 실패하여 그 힘이 감소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뜻 평범하고 반복적이어서 진부해 보여 돌봄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때론 주변화되지만, 끊임없이 요동치고 흘러넘쳐 새롭게 생성되는 돌봄노동자의 비가시적·비물질적 존재와의 얽힘은 인간 너머 종과 “함께-되기(becoming with)”를 통한 공동거주의 기술(an art of co-dwelling)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³⁶⁾ 나아가 인지증의 관계적 돌봄을 똥, 고름 그리고 영혼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정동적 세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인식론적·존재론적·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앞으로 더 많은 유령학적 관점의 실천과 상상력이 출현을 기대하는 바이다.

35) 미셸 드 세르토, 앞의 책, 106쪽.

36)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124-126쪽.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nd), 영혼, 유령, 환영,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3년 12월 17일 접근.
-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 김희강·박선경,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학보』 제55권 제2호, 2021.
-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2016].
- 로렐 켈달, 김성례·김동규 역, 『무당, 여성, 신령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의례적 실천』, 일조각, 2016[1985].
- 마르셀 모스, 이상률 역, 『증여론』, 한길사, 2002[1925].
- 미셸 드 세르토, 신지은 역, 『일상의 발명: 실행의 기예』, 문학동네, 2023[1988].
- 박윤혜·백일순,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1호, 2021.
- 백영경, 「돌봄소득(Care Income)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 『NGO연구』 17권 2호, 2022.
- 백영경,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창비, 2022.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2015].
- 사라 아메드,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2004].
- 서원주, 「돌봄과 부정의: 불평등한 돌봄 책임 분담에 대한 고찰」, 『사회와 철학』 제46집, 2023.
- 신유정, 「돌봄과 모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7권 1호, 2021.
- 에릭 홉스봄·버나드 S. 콘데이비드 캐너다인·프리스 모건·테렌스 레인저·휴 트레버-로퍼,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1983].
- 이광규, 「동족집단과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회』 9, 1977.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1994].
- 자크 데리다·안 뒤푸르망텔, 이보경 역, 『환대에 대하여』, 필로소픽, 2023[1997].
- 정종민, 「비접촉시대에 돌봄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위태로운 기술로서 정동적

똥, 고름 그리고 영혼: 환대 (불)가능한 인지증 돌봄에서 영혼과 정동적 관계 맺기

- 부정의」, 『한국문화인류학』 55권 3호, 2022.
- 정중민, 「결여/부재의 정동적 욕망: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68권, 2023.
- 조주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권, 2016.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1990].
- 최길성,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민속원, 2010.
- 캐서린 린치·존 베이커·세라 캔틸런·주디 월시·모린 라이언스·매브 오브라이언·니얼 헨런·매기 필리,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2016[2009].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7.
- Brijnath, Bianca, “Alzheimer’s and the Indian Appetite,” *Medical Anthropology* 30(6), 2011.
- Cho, Grace M.,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Steven F. Rendall,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Good, Byron J.·Andrea Chioyenda-Sadeq Rahimi, “The Anthropology of Being Haunted: On the Emergence of an Anthropological Haunt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1, 2022.
- Han, Clara, *Seeing Like a Child: Inheriting the Korean War*,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0.
- Hyland, Sabine, Christine Lee, and Roberto Aldave Palacios, “Khipus to Keep Away the Living Dead,” *Anthropology News*, 2021, Accessed December 17, 2021. <https://www.anthropology-news.org/articles/khipus-to-keep-away-the-living-dead/#citation>
- Ingold, Tim,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Taylor & Francis, 2011.

- Ironside, Rachel, "Feeling Spirits: Sharing Subjective Paranormal Experience through Embodied Talk and Action," *Text and Talk* 38(6), 2018.
- Isaksen, Lise Widding, "Toward a Sociology of (Gendered) Disgust: Images of Bodily Decay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23(7), 2002.
- Kitwood, Tom, *Dementia Reconsidered: The Person Comes First*, Philadelphia, Pennsylvania: Open University Press, 1997.
- Kwon, Heonik, *Ghosts of War in Vietna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Merli, Claudia, "A Chimeric Being from Kyushu, Japan: Amabie's Revival During Covid-19," *Anthropology Today* 36(5), 2020.
- Spooner-Lockyer, Kassandra and Katie Kilroy-Marac, "Ten Things about Ghosts and Haunting," *Anthropology News*, 2021, Accessed December 17, 2021. <https://www.anthropology-news.org/articles/ten-things-about-ghosts-and-haunting/>
- Twigg, Julia, "Carework as a Form of Bodywork," *Ageing and Society* 20(4), 2000.
- Wagner, Roy, *The Invention of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Abstract

FECES, PUS, AND SPIRITS: MAKING AN AFFECTIVE
MESHWORK WITH SPIRITS IN (UN)HOSPITABLE DEMENTIA
CAREGIVING

JEONG JONG-MIN (JEONG, JONG-MIN)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interest in non-human elements of care, this study explores why and how spirits, a non-human entity, have emerged as a force to be reckoned with in questions about the forces that have driven and sustained caregiv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focuses on dialogues with four female care workers. It traces and describes the affective flows that emerge through human encounters with spirits that are linked to contaminants, such as feces, urine, and pus, using Sarah Ahmed's concept of sticky affect, Karen Barad's performative realism, and Judith Butler's gendered performativity as analytical frameworks. In doing so, it presents an affective world of care that is newly constituted and created through encounters with spirits that emerge in response to and in coordination with changes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Thus, it depicts various scenes where care workers, who are deeply embedded in the patriarchal and capitalist order and seem to be unable to escape it, are breaking out using existing language, ideology, values, and institutions. Accordingly, it emphasizes that the spirit is not an object to be eradicated or a meaningless immateriality that disappears

quickly but a key factor in creating everyday care through an affective meshwork between humans and spirits. Furthermore, it offers a new anthropological imagination and practices for the study of care from a haunt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 feces, spirits, hospitality, care, affect